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공경은 기독교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
- 공동체 운영위원회 37차 임시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에 탁구대회 예선전을 진행합니다.
- 코로나 상황의 종료와 함께 심방을 시작합니다. 교역자들과 의논해 주십시오. 전체심방은 9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 장신대 신대원 70기 동기회에서 17일(수) 방문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교사들이 18일(목) 학교를 방문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0 호

2023년 5월 1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타지에서의 공동생활

사랑방공동체를 떠나 미국 서부의 치노지역에서 김경무 장로님, Mrs Kim 가정의 사랑으로 멧쟁이4학년 학생 5명과 공동생활을 하는 지도 어느덧 3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 해주신 덕분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LA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희뿌연 시멘트의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색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느낌은 회색이나 색이 빠진 듯이 보였습니다. 넓은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픽업 나오신 장로님 부부의 차를 타면서 다양한 크기의 차를 볼 수 있었고 한국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을 보면서 서부에서 말타고 다니던 영화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위해서 매주 의논하고 계획해 가면서 채워 갑니다. 미국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집 생활의 에티켓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 생활에 따르고 필요한 것이나 불편한 것은 말을 해달라셨습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음식 먹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포크와 칼을 사용하면서 사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음식들이었는데 흐르는 시간만큼 먹는 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이 많습니다.

전반에 걸쳐 정해진 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장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책임과 자유인 것이죠... 교통법규도 이상할

만큼 잘 지키고 신호등 표시 외의 규칙도 잘 지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 다음 사람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물건을 살 때,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줄을 잘 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줄을 서 있으며 잘못 섰을 때는 줄은 여기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이 밝으며 친절하게 느끼는 것은 얼굴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을 배우면서 한국의 특징이 입술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발성의 특징과 표정에서는 경직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표현들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맛있다. 좋다. 잘한다." 등의 표현들을 생활 속에서 자주 하면서 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새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재경험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상황을 마주하고 맞춰가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배경과 상황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서로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주중에 주변에 관광, 여행지를 들리는데 리버사이드 지역에 도산 안창호 기념 공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인들은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여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을 부조로 볼 수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성서일기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이 타지 생활의 상황에 살아가는 힘과 생각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학생들이 더 큰 사람이 되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한주간 말씀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
 < 마태복음 15장 5,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25장 337장 / 219장
 기도 :
 성경 : 사도행전 21장 27절-22장
 제목 :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1. 내용: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집단폭력에 맞서서 해명연설을 하다. (What)
 <문단구분>
 27절~36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집단 폭행으로 죽을 뻔하다>
 37절~2장 <바울의 해명연설과 유대인의 반응>
2. 의미: 광분한 유대인 앞에서 침착한 바울의 해명 (Why)
 - 1) 바울은 이미 많은 고난을 받은 후라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 2)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이방사람들에게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 3)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
3. 적용: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How)
 - 1) 거짓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잘 주의하고 분별하자.
 - 2) 믿음 생활에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을 잘 지켜나가자.
 - 3) 열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자.

울 엄마, 울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별하는 날 울 언니 “울 아버지 이제는 못 봐. 이젠 못 보네.” 하는 통곡으로 아버지와 이별하고, 그리고 난지 3개월 후 울 엄마는 울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다. 울 엄마, 아버지 두 분은 사이가 넘 좋아 그곳에서도 잘 지내시는지 꿈에도 한 번 안 찾아 오신다.

초가집 방 한 칸에 앞산, 뒷산에 흰 눈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날 아침 딸내미 넷과 동요, 가곡을 같이 부르며 가르쳐주시고, 때론 풀피리로 노래 부르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2년 전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디서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신앙생활은 아버지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좀 닳은꼴이 형부다. 아버지인 시골교회에 다니셨기에 더 많은 문제와 접하신 것 같다.

이 글을 일부 쓰고 잠이 들었다. 꿈에 동생이 나타나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 평소에 오빠에게 주었다고 했다(느닷없이 왜 오빠가 나와. 꿈이 개꿈이니까^^). 엄마 음식 솜씨는 언니가 닳은꼴. 나는 수줍음을 잘 타고 말이 없는데, 이건 엄마 닳은꼴.

지금은 두 분 다 하늘나라에서 자녀들 위해 생전처럼 기도하시고 계실듯하다. 그 덕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서 감사한 삶을 산다.

비움사랑방 임은숙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에베소서 6 : 1-4 인도자
4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578, 27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15 : 1-6 설교자
199 따뜻한사랑방
“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7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윤호중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찾아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말하면 부모에게 드리기로 한 것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율법을 더 잘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들 사이의 틈을 이용해 부모공경을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참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명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마22:37~40, 요13:34~35]

아버이를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계명의 본뜻을 통해 부모공경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겉치레로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기초 위에 부모를 공경합시다. 하나님 안에 순종합시다. 이를 통해 장수의 복을 누리며 신앙의 공동체에 바른 기초를 세워 나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성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달 성경이야기는 요셉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이집트에 보내셔서 그 꿈을 이루신 이야기는 언제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라 힘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노래와 성경이야기 활동을 통해 요셉이야기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풀과 꽃과 나뭇잎을 볼 수 있는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고자 화요일에 광릉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특별한 꽃들도 보고, 덩굴식물들도 봤습니다. 그 중 꾸러기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올챙이와 도롱뇽 알이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모습이 신기해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해서 신발이 젖지 않는 선까지 가서 조심스럽게 관찰을 했습니다.

5월에는 귀여운 막내 동생의 생일 있습니다. 월래는 다음 주 봄여행 때 생일이라 미리 당겨서 이번 주에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꾸러기학교에서 처음 하는 생일잔치에 너무 기분이 좋지만 쑥스러워서 몸을 비비꼬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친구와 언니, 오빠, 선생님 그리고 가족 모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축하해줘서 막내 동생이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주 올해 첫 여행을 떠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 많이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여름도 아닌데 자꾸 모든 모임들을 하려할 땐 그늘을 찾아 눈을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축구를 할 땐 햇빛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공을 굴리고 고함을 칩니다.

배움과 가르침

이런 어린이들을 지켜보신 꾸러기 학부모님께서 어린이대상 축구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의정부시 대표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고·저 학년으로 나누어 40분씩 전문적인 스킬을 전수해주셨는데 과연 친구들의 반응은?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공을 넣었거나 경기에서 졌거나 그날만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축구에 대해 선수로부터 직접 수업을 받았다는 감동만 두 볼에 가득했습니다. 다다음주에 한 번 더 수업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내년엔 아예 정식 수업으로 채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배움은 사람을 설레게 하고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린이들의 눈이 가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어린이학교 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가정학습 기간이 끝나자 아쉬움과 기대를 눈동자에 품고 등교하는 모습들이 평소보다도 반가웠습니다. 월요일에는 학생회에서 멋쟁이 자치회를 열고, 열심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동심화학습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 속 가정이야기>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성경 속 인물들의 가정들을 이리저리 맛보며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전체 체력장이 열렸습니다. 달리기, 멀리뛰기, 유연성, 근력운동 등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멋쟁이들이 스스로의 신체능력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5학년의 유럽 공동체탐방 여행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두들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는 이 과정을 사랑하고, 또 나름대로 즐기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옷 정리가 필요합니다

5월이 되니 갑자기 날이 더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마음이 따듯해지는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 걸까요?

얼마 전, 이제 두꺼운 옷을 집어넣고 가벼운 여름옷들을 꺼내면서 날을 잡아 모든 옷들을 다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뜸했던 몇 년간 잘 입지 않았던 옷들도 있고, 언젠가는 입을 일이 있지 않을까? 살이 좀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옷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특별한 추억이 있던 날 입었던 옷들도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지.. 맨날 입으려고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가지고 있던 것들을 꺼내보며 그동안 참 많은 걸 이고지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정리가 끝날 때즈음 새로 꺼낸 옷들을 옷장에 걸고 보니 봄, 여름 계절에 맨날 입던 옷들입니다. 깨끗하고 예쁜 옷을 새로 꺼내기보다는 이번에도 역시 조금 낡고 해졌더라도 그동안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게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스타일인걸까요? 습관인걸까요?

어린이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한복을 입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몸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옷 정리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3:26~27)]

매일매일 마음속에 있는 옷들도 정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했지만 정작 중요한 옷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옷장에서 꺼낸 옷이 아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권재만 목사

찬 송 : 289장, 295장

성 경 : 에베소서 2장 19절

말 씬 : 하늘 시민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국의 탈북여성들>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중국내의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지역별 모임>

각 지역의 모임을 가질 때 한국 공동체 역사 정리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며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잘 연합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 운영위 임시 회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작은 모종으로 심겨진 상추는 이제 제법 속아줄 만큼 커지고, 고구마는 멧쟁이들 노작시간에 함께 심어 자리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공동식구들은 아침 일찍 참깨를 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중히 심겨진 농작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5월, 가족들이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가정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